건강 칼럼

예측하기 어려운 골절 · 절단 사고… 신속한 대처가 관건

이 우 태
서울현대병원 병원장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산업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다.

잠시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데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로 산업현장이 아닌 휴식하는 공간이나 가정에서도 외상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단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쉽게 말해 외상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고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외상사고의 종류는 다양하다. 단순히 가벼운 상처 정도로 굳이 의료진의 진단 없이 셀프케어만으로도 극복이 가능한 외상사고가 있는 반면 뼈가 골절되거나 손가락, 발가락 등이 절단되는 것도 있다.

보통 전자에 해당하는 외상사고는 발생한 즉시 적절한 응급대처 후 관리가 이뤄진다면 흉터 가능성도 줄어들며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골절, 인대 손상, 손가락·발가락 절단 사고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취해야 한다.

먼저 골절이나 인대가 손상되는 등의 외상사고를 입었다면 빠르게 응급외상센터를 찾길 권한다. 골절 중에서도 폐쇄성 단순 골절은 응급이나 긴급 수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개방성 골절 및 신경, 혈관 손상 등이 동반된 경우라면 손상 부위나 정도에 따라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뼈 주변으로 신경, 혈관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골절 발생 시 주변부의 신경 및 혈관 손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한다.

응급외상센터 방문이 필요한 골절로는 대퇴부 골절, 쇄골 골절, 상완골 골절, 팔꿈치 골절, 손목 관절 및 전완부 골절, 발목 골절 등이 있다.

이어서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되는 수부 외상도 신속한 치료가 필수다. 단, 이 경우 고난도의 치료술이 요구되는 수지접합술(미세접합술)이 필요하다. 미세접합술은 절단 부위를 접합하는 수술법으로 끊어진 뼈, 혈관, 신경, 인대, 피부 등을 모두 연결할 수 있다.

이들은 의료진의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수술하기 어려워 1mm 이하의 혈관을 30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수술 기구를 사용한다.

수지절단 사고는 빠르고 신속하게 수술적 치료가 이뤄지는 것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잘 해야 한다. 응급처치가 안 되면 수술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 만약 손가락, 발가락 절단 사고를 입었다면 절단 부위를 가능한 냉장 상태로 보관해 옮겨야 한다. 냉장 온도는 섭씨 3~4도 정도가 권장된다. 단, 절단 부위에 직접적으로 물이나 얼음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관법으로는 절단 부위에 오염이 있을 경우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 깨끗한 천이나 손수건, 거즈 등으로 감싸고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한다. 밀봉한 절단 부위를 얼음을 채운 용기에 넣어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동하면 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우크라이나 지원 멈추지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로열 캐슬 가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운하 맞아?"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사람들이 장기간 이어진 썰물과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운하를 바라보고 있다. 베네치아 운하 수로는 고온 건조한 기후와 장기간 지속된 썰물 작용, 가뭄이 겹치면서 일부 강과 수로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며 바닥을 드러내 곤돌라와 수상택시는 영업을 중단한 채 방치돼 있다.

사 설

전북 사전의향서 등록 활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한 희망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생애 마지막 순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됐다. 전북에서도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70세 어느 노인은 2년 전 연명치료 거부 뜻을 밝힌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했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소변줄 끼고 코에도 줄을 끼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을 때 그런 것까지 끼고 살아서 뭘 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19세 이상이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향서는 전산망을 통해 전국 병원에 등록되고 말기 암 등에 걸려 회생이 어려울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전북에서도 연명치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익산시의 경우 보건소 한곳에서 맡아왔던 상담 업무를 보건지소로까지 넓혔다. 보건소에서만 상담하다 보니, 읍면 주민들이 접근성이 어려웠다. 그래서 14개 읍면의 보건지소에서도 상담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1백60만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전북의 참여비율은 5.9퍼센트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하고 어르신들이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죽음을 의미 있고 존엄하게 받아들이려는 인식 변화 속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술값 24년 만에 최대 폭 상승

물가 인상이 국민들의 생활을 갈수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 문제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소주 가격이 전년 대비 7% 넘게 오르는 등, 주류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소주와 맥주 같은 대중적인 술 가격은 올해 또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서민 살림은 더 팍팍해질 것 같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가 서민의 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값이 올랐다. 지난해 소주 가격은 1년 전 보다 7.6% 뛰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다른 '국민 술' 맥주도 5.5% 올랐다. 전체 주류 가격은 재작년보다 5.7% 올랐는데,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이처럼 주류 물가가 오른 건 지난해 주류 3사 모두 원가 부담을 이유로 출고가를 8% 가까이 올렸기 때문이다. 소주의 원료인 주정 가격은 10년 만에 7.8%가 올랐고, 맥주에 붙는 주세는, 지난해 4월 리터당 20원 넘게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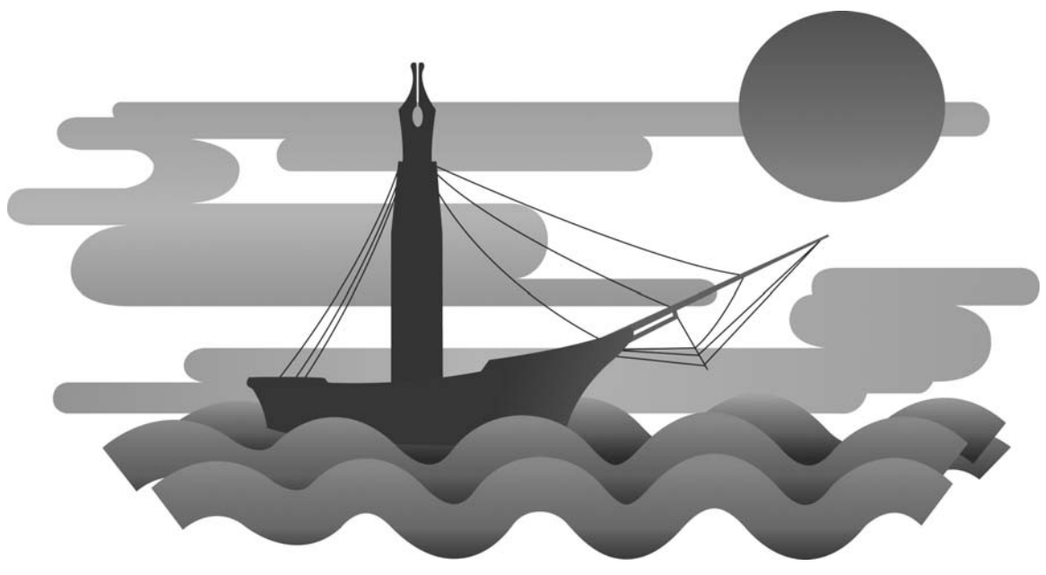
문제는 오는 4월부터 맥주 주세가 30원 넘게 또 오르고, 소주병 공급 가격도 최근 20% 넘게 뛰는 등 인상 압박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맥주하고 막걸리는 주세가 물가연동제로 택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오른 측면이 세금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출고가가 1백 원 내로 인상돼도 대형마트나 편의점, 식당의 소비자 가격은 몇 백 원에서 최대 1천 원까지 오르게 된다. 소주 한 병의 식당 가격이 곧 6천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주류 3사는 가격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물가와 시장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